

[국제]

美 대사관 간 北 “核보다 BDA 먼저”

■ 6자회담 이틀째

북한이 적진으로 들어갔다. 전세계의 관심이 쏠린 이른바 'BDA(방코델타아시아) 실무회의'는 19일 오후 주중 미국대사관에서 열렸다.

미국과 핵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북한이 미국 영토나 다름없는 미 대사관에 들어가 '민감한 문제'를 논의하는 모양새를 보인데 대해 베이징(北京) 외교가가 술렁이고 있다.

예초 BDA 회의 장소는 다오위타이(釣魚臺)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6자회담 장소인 다오위타이 안에 있는 광웨이위안(芳菲苑) 내 다른 방 정도에서 회동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많았다.

실제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도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BDA 회의는 다오위타이에서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언론의 집중적 관심을 피해 조용하면서도 실질적인 회담을 갖기에는 취재진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다오위타이 만한 곳 없다는 게 현지의 분위기였다.

게다가 BDA 문제를 6자회담과 연계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힌 북한으로서 6자회담과 BDA회의를 같은 장소(다오위타이)에서 갖는 편이 최선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의표를 찔렀다. 현재까지 미국 대사관에서 회담을 갖자는 제안을 누가 먼저 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이 '미국대사관'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간단치 않은 상징성을 보여준다.



북-미 양자간 'BDA(방코델타아시아) 계좌동결 문제를 실무협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오광철 조선무역은행 총재 일행이 19일 오전 베이징 서우두 공항을 급히 빠져 나가자 취재진들이 차를 둘러싸고 있다. /메이징=연합뉴스

北, 금융전문가 내세워 BDA 성과 총력 양국 절충 따라 6자회담 향방 좌우 될 듯

우선 북한이 이번 BDA 회의를 실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밀고 당기는 협상이라기 보다는 미국의 설명을 듣고, 향후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실무 논의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디에서 열린든 상관없다'는 입장이 가능했다는 예가다.

현지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과거 뉴욕회담에서 정치적 선전에 능한 리군 외무성 미국국장을 내보낸 것과 달리 이번에는 금융전문가인 오광철 조선무역은행 총재를 내보낸 것도 실무협의를 이끌어보겠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협상의지를 과시하려 한다는 해석도 많다. 핵실험을 강행, 핵보유국이 된만큼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성과'를 얻어보려는 북한의 의중이 엿보인다는 분석이다.

한지 외교소식통은 "북한은 BDA 회의의 개시를 협상의 출발점으로 여겼던 것 같다"면서 "결국 BDA 회의가 이번 회담의 백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BDA 회의에서 북한과 미국이 어떤 절충점을 찾느냐에 따라 북미 양자협의를 물론 전체 6자회담의 향방도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북한이 협상의지를 과시하려 한다는 해석도 많다. 핵실험을 강행, 핵보유국이 된만큼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성과'를 얻어보려는 북한의 의중이 엿보인다는 분석이다.

군수·전력·석유화학·통신·석탄·민간항공·조선업

中, 국가 통제 7대 전략산업 첫 선정

중국 정부는 군수산업과 전력산업, 석유화학업, 통신업, 민간항공업, 조선업 등 7개 산업을 국가자본이 절대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전략산업으로 선정했다.

중국이 이번에 7대 전략산업을 처음으로 공식 선정한 것은 외국인들이 중국의 민감한 산업체와 국유자산 지분을 할함에 대가 사들이고 있는 것에 대한 중국 지도부 내부의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다.

중국 신화통신은 19일 리통통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의 말을 인용해 이들 산업은 중국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생명선이 되는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분야라고 보도했다.

리 주임은 '지도의견'이라는 문건을 통해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이들 7개 전략산업 소속 기업들은 완전 국유기업으로 존재하거나

국가자본이 절대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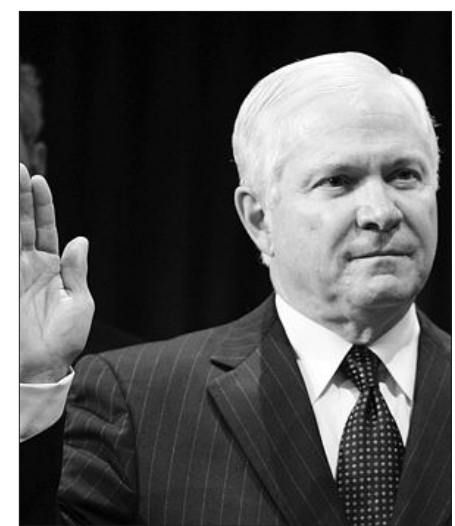
그러나 외국인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는 이번 새로운 규정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감독하는 이들 7개 업종 기업에만 적용되며 금융업이나 철도업, 체신업 분야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리 주임은 또 장비제조업과 자동차, 전자정보, 건축, 철강, 금속, 화학, 갈리설계, 과학기술 등 국가경제에 기반이 되는 지주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자본이 상대적으로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석유화학업 하류 산업과 통신 부가 가치서비스업 분야의 국유기업들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개인이나 외국인 자본을 끌어들이어 소유구조 다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게이츠 美 국방 공식 취임

“이라크전 실패는 美 재앙일 것”



로버트 게이츠 신임 미 국방장관이 18일 이라크전 처리 책임을 지고 물러난 도널드 럼즈펠드 장관의 뒤를 이어 공식 취임했다.

신임 게이츠 국방장관의 취임은 이라크 종파분쟁이 날로 악화, 내전으로 치달으면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정책노선에 대한 본격적인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정책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게이츠 장관은 이날 군복을 입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 관계자 수십명을 배정하며, 디케니 부통령을 따라서 선서문을 낭독했다.

게이츠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이라크 문제가 자신의 우선과제임을 밝힌 뒤 이라크에서의 실패는 향후 수십년간 미국을 괴롭힐 재앙이 될 수 있다며 이라크전 승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北 또 '홀리데이 외교' 펼치나

북한은 올해 중국 춘제(春節)에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다. 7월4일 미국 독립기념일(한국시간 5일)엔 미사일 발사, 그리고 지난 10월9일 미국 콜럼버스테일에 맞춰 핵 실험을 강행했다.

미국 추수감사절을 앞둔 지난 10월20일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베이징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만나기로 했으나 김 부상이 독감을 이유로 나오지 않는 바람에 미국으로 돌아갔다. 약 일주일만인 26일 베이징을 다시 찾아야 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베이징에 모인 6자회담 대표단은 북한의 이런 '홀리데이 외교'에 곤혹스럽게 그지 없다.

북한은 그동안 공휴일이나 주말 등을

이용해 메가톤급 발표들을 내놓거나 회담을 가진 사례가 많았다.

최소한 크리스마스 이전에 회담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 가족과 연휴를 보내려는 미국 대표단의 초조함을 이용한 북한의 협상전략에 각국 대표단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난감해 하고 있다.

미국으로선 크리스마스가 월요일이어서 사실상 23일부터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21일 정도에는 회담을 마쳐야 회담 결과에 대한 보고 및 평가까지 일단락지을 수 있다.

벌써부터 이번 회담에서도 크리스마스를 염두에 둔 북한의 협상전략이 먹히든 분위기다.

힐 차관보는 18일 북한의 기조연설에

성탄 앞둔 지연 전략에 각국 대표단 대응 난감

대해 "확실히 크리스마스 연휴 기분에 맞춘 내용이 아무 것도 없었다"고 실망감을 표시했다.

심지어 베이징 일각에선 힐 차관보가 부인으로부터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내지 않으면 이혼하겠다"는 농담성 위협을 받았다는 확인되지 않은 괴담까지 퍼지고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매우 교묘하게 협상 상대의 약점을 잡고 연휴를 이용하고 있는데 상당한 고의성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대표단들이 여기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낼 용의가 있다면 우리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계관 강경 발언 상투적 협상 전략”

美 국무부 대변인 밝혀

미국 정부는 18일 북핵 6자회담 첫 날 회담에서 북한측이 수석대표 연설을 통해 강경한 요구를 내세운 것은 예와 다름없는 협상전략이라고 풀이하며, 이번 회담에서 조기에 구체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밝혔다.

손 매크 맥 국무부 대변인은 "서두에 최대한의 요구를 내세운 뒤 가능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하는건 북한의 협상 패턴"이라며 북한의 과거 협상 전략으로 볼 때 첫 날 연설은 놀랄 일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매크 맥 대변인은 "이번 협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조기에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교황청 축구팀’ 만든다

“세리에 A팀 대등 실력”

베르토네 추기경 밝혀

로마 교황청은 이탈리아 프로축구 1부리그인 '세리에 A' 팀에 견줄 수 있는 축구팀을 만들 계획이 있다고 타르시시오 베르토네(72) 추기경이 18일 밝혔다.

베르토네 추기경은 이날 로마에서 성 베드로 바실리카 성당측 평신도 직원과 스위스 경호대 간 아마추어 축구경기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바티칸은 로마

나 인터밀란, 제노바 등에 맞먹는 축구팀을 창설할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교황청 축구팀 창설 계획을 세운 그는 그러나 "너무 흥분하지 말자"면서 "우리는 아마추어 축구경기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해 프로 축구팀을 만들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축구팀 창설 준비위원들은 이번 구상은 기독교 사회의 스포츠 전통을 재확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IQUE FURNITURE GALLERY

빛고을 명품가구 박물관 기념 SALE

4인용 소파: ₩3,200,000 → ₩2,400,000

2인용 소파: ₩1,800,000 → ₩1,350,000

3인용 소파: ₩2,500,000 → ₩1,875,000

1인용 소파: ₩1,200,000 → ₩900,000

책상: ₩1,500,000 → ₩1,125,000

의자: ₩800,000 → ₩600,000

전화: ₩1,000,000 → ₩750,000

www.빛고을명품가구박물관.com 955-8820

2007년 중국 명문대학 2월 입학반 모집

중국명문대학 2007년 2월 입학반 중국대학 입학

중국명문대학 2008년 8월 입학반 모집

중국명문대학 입학 설명회

www.chinaedu.com